
시험에서는 자장면을 쓰고 나와서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외치는 학생들, 이제 고민하지 마!

안용순 · 서울 배명중학교 국어 교사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니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 두신 비상금으로 시켜 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웬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니는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위의 노래 가사는 '지오디'(노래하는 가수 모임)의 '어머님께'라는 노래 가사이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이 나온다. 바로 자장면이다. 가수가 부르는 원 노래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로 불려진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사는 '자장면'으로 되어 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다.

가끔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자장면’이라는 발음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짜장면’이라고 발음한다. 무엇이 맞는 표현인지 헷갈렸다.

학교 현장으로 가 보자. 1교시 국어 시험에서 맞춤법 문제가 나왔다.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장면을 정답으로 쓰고 나온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급식이 안 되어 밖으로 나가 먹을 양이면 “야, 짜장면이나 한 그릇 시켜”라고 말한다. 표기는 ‘자장면’으로 하고 ‘짜장면’으로 발음하는 이상한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가 아니고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났다. 학생들도 종종 물어본다. “자장면이 맞아요? 짜장면이 맞아요?” 교사로써 난감했다. 현실 속에서는 짜장면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는데 맞춤법 문제라도 낼 양이면 자장면을 정답 처리해야 하니 말이다.

알고 보니 자장면은 예전 국어사전에서 계속 정리된 말이었기에 아무리 현실에서 짜장면이라고 쓴들 학자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국립국어원의 입장에서 자장면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 그간의 상황이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표준어를 새로 정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기에 여러 시간의 조사 작업 끝에 심의 대상 단어가 국어심의회에 상정되었고,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회의에서 새 표준어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생활 속에 널리 쓰이는 말 39항목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학교 사회에서도 입을 모은다. 물론 표준어를 정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 단위에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짜장면’의 사례에서처럼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개발새발’처럼 학생들은 맞다고 생각되는 말이 표준어가 아니고 ‘괴발개발’이라는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말이 표준어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은 의아해한다. 한글을 만든 배경도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익히고 서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의 취지와는 다른 쪽으로 표준어가 정해지니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먹거리’같이 1980년대 이후 대학생들이 만들어 대중화시킨 단어들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동아리’나 ‘새내기’ 같은 말들과 함께 ‘먹을거리’를 대체할 말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지만 실제 표준어는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너무 빨리 표준어 심의가 들어간 게 죄라면 죄이다. 1990년대 ‘먹거리’가 대중화 추세를 보이자 그때 국립국어연구원(현재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심의를 하여 ‘볼거리, 읽을거리’ 등을 ‘보거리, 읽거리’로 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을 두어 ‘먹거리’를 표준어로 삼지 않고 ‘먹을거리의 잘못’으로 정리했다.

이처럼 그동안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으나 그것으로 비표준어의 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언중의 언어 사용을 홍보와 교육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것의 결과로 언중이 많이 쓰는 말들을 비표준어로 두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비표준어 사용자로 만든 꼴이 되고 말았다.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언중의 의견을 들어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을 표준어로 삼으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국립국어원과 같은 책임 있는 기관에서는 앞으로 항상 언중이 사용하는 말을 유심히 보고 표준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비표준어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표준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언어 정책을 세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도 표준어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표준어 교육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투리 교육 또한 지역 교육의 일환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표준어 교육'의 취지는 학생들의 바른 말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다는 것이다. 표준어 사용 교육과 표준어를 잘 정리하는 정책은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앞서 요사이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보다 풍요롭고 교양 있게 하기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나와야 한다. 이제라도 청소년 언어생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